



## 제2편 역사

# 제1장 고대

## 제1절 선사시대

### 1. 구석기시대

#### 1) 시대개관<sup>1)</sup>

##### (1) 구석기시대의 개념

구석기시대란 인류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어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기인 기원전 약 1만 년 전 신석기시대가 시작될 때까지의 인류문화사의 가장 오래된 문화단계를 말하며 주로 채집과 사냥으로 살았던 시대이다. 인류문화사의 99%이상이 구석기시대에 속하며 신생대 제3기에서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의 말엽에 이르는 긴 시간속에 일어난 인류문화시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류는 약 5백만년전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초의 인류인 Australopithecus는 도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되지만 석기를 제작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인류의 최초의 석기는 동아프리카에서 약 260만년 전에 Homo Habilis에 의해 제작된 것이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뒤에 구석기문화가 시작되었다. 동아프리카에서 호모 하빌리스가

1) 배기동, 1997, 「구석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사 2(구석기 문화와 신석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약 150만년 전에 Homo erectus로 진화하여 인류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크게 향상되고 당시의 기후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구의 이동이 잦아지게 되었을 때 일부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볼 때는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로부터 퍼져 나와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왔다고 할 때 한반도가 최종 종착지인 셈인데, 현재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인 하북에서 이미 약 100만년 전에 고인류의 서식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후 중부(중기) 홍적세 기간 동안 이 고인류가 지속적으로 서식의 범위를 넓혀 갔다고 한다면, 중부 홍적세 이른 시기에 한반도에 퍼져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2) 구석기 제작기법

석기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른 물질문화의 제작보다는 훨씬 단순하지만 크게 몇 가지 석기제작기법이 구석기시대 동안 나타난다. 원석에서 돌을 떼어내는 방법에 따라 던져떼기법·모룻돌법·직접타격법·간접타격법·가압법 등이 있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석기는 정교해지는데 이것은 석기제작기법이 점진적이지만 고인류의 인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시대가 올라갈수록 원시적인 기술이 사용되고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석기는 그 형태가 불규칙하며 또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석기의 제작기법은 구석기시대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석기의 제작기법의 발달은 인류의 진화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석기를 제작할 때 원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조각을 박편(剝片, 격지, Flake)이라고 부르고 돌조각이 떨어져 나온 원래의 돌덩이를 석핵(石核, 몸돌, Core)이라고 부른다. 박편과 석핵은 떨어져 나온 언저리의 볼록한 두덩, 즉 타격혹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타격혹이 있는 편이 박편이 되고 석핵에서 박편이 떨어져 나온 부분은 오목한 구덩이가 남아 있게 되어 있다. 석인(石刃) 또는 돌날은 박편의 한 종류인데 양측면이 평행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길쭉한 것을 말하는데 편의상 흔히 길이가 폭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박편이 떨어져 나올 때 힘을 받은 편을 타격면이라고 부르며 박편의 떨어져 나온 면을 배 그리고 반대편, 즉 바깥 부분을 등이라고 부른다.



원석에서 돌을 떼어내는 방법에 따라 던져떼기법·모룻돌법·직접타격법·간접타격법·가압법 등이 있다.

던져떼기는 가장 원시적인 석기제작기법으로 돌을 던져서 깨뜨려진 돌의 모서리를 바로 사용하거나 부서진 돌의 모서리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석재를 던지지 않고 커다란 돌 위에 내리쳐서 손에 든 돌을 가공함으로써 석기를 만드는 방법을 대석법(臺石法) 또는 모루떼기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단단한 규질암의 석기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찍개 등의 큼직한 석기를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돌망치를 사용하여 다듬어야 할 석재를 한 손에 잡고 깨뜨려 다듬어서 제작하는 기법을 직접타격법이라고 부르는데 구석기제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간접타격법은 원석 위에 뾰족한 끝을 가진 췌기를 원석 위에 대고 망치로 췌기의 머리 위를 때려 박편을 떼어내는 방법인데 이는 석재를 가공하는 기법으로서 보다 더 길고 측면이 날카로운 긴 박편, 즉 석인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加壓法은 망치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뿔 등의 단단한 물질로 만든 뾰족한 도구를 원석에 대고 힘을 가하여 박편을 떼어내는 방법이다.

석기를 깨뜨려내는 데 있어서 타격면을 미리 가공하는 기법이나 최종 석기의 모양을 미리 모양에 만들어 놓고 깨뜨려내는 방법들도 있다. 이러한 기법은 대단히 발달된 기법으로 중기 구석기 공작의 기술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르발르와(Levallois)기법이나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석기형태인 석인제작기법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구석기시대의 시기구분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는 전기(Lower), 중기(Middle) 그리고 후기(Upper)로 나누어진다. 한반도의 구석기문화들도 이러한 시기구분을 따르고 있다. 구석기를 전기·중기 그리고 후기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기공작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전기에는 비교적 제2차 가공이 적고 큼직한 석기가 많이 발견되고, 중기 구석기에서는 기능이 분화된 작은 석기들이 다수 출토되고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로 르발르와기법이 도입되는 시기이다. 후기 구석기에 이르면 훨씬 더 정교한 소형석기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석인기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전기 구석기시대는 인류의 시작 또는 석기문화의 시작에서부터 중부 홍적세의 말기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중기 구석기는 이 시기 이후에서 3만 5천년 전경까지의 기간, 그



구석기를 전기·중기 그리고 후기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기 공작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리고 후기 구석기는 약 1만 2천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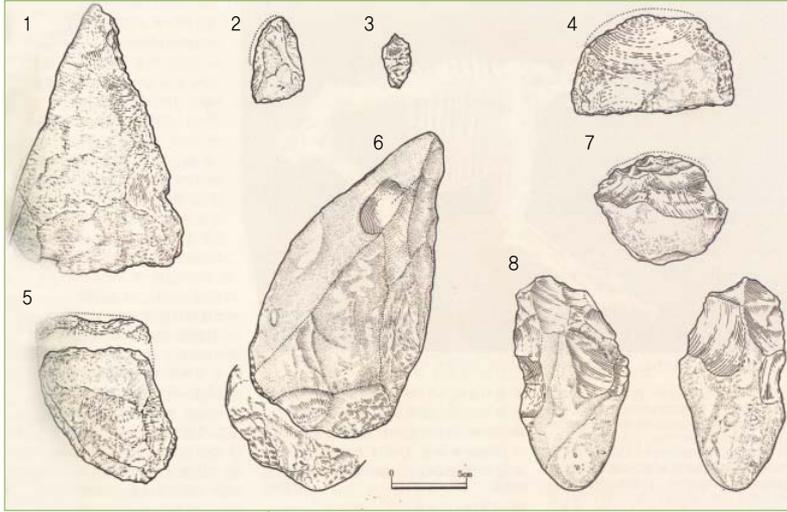


사진2-1 : 구석기시대 유물  
모사도-1. 찌르개  
2. 자르개 3. 뚜르개  
4. 외날찍개 5. 굽개  
6. 주먹괘이 7. 쌍날  
찍개 8. 주먹도끼

### ① 전기 구석기시대

전기구석기를 유럽지역과 아프리카에서는 각기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Abbevillian문화와 Acheulean문화가 해당되며 아프리카에서는 Oldowan문화와 아슐리안문화가 전기 구석기에 해당되는 문화이다. 이 중 올도완문화는 호모

헤빌리스에 의해 약 250만년 전에 시작된 구석기문화로 동아프리카에서 약 150만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개발한 아슐리안문화가 출현할 때까지 지속된 가장 원시적인 석기문화이다. 아슐리안석기공작은 아슐리안주먹도끼로 상징되는데, 큼직한 석핵 또는 대형박편의 양면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여러 가지 평면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원형 또는 뾰족한 끝을 가진 침두형이 많다. 아프리카에서는 약 150만년 전에 이미 이러한 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10만년 전, 즉 중부 홍적세의 후반까지 널리 사용된 석기문화이다. 이 석기공작은 전형적인 주먹도끼 이외에도 찍개류·굽개류·다각면원구·정형화된 석핵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석기제작방법이 올도완에 비하여 훨씬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많은 지점에서 전기 구석기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하부 홍적세로 올라갈 수 있는 유적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며 발견될 가능성도 그다지 많지 않다. 한반도의 전기 구석기의 특징은 석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하고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주먹도끼류나, 다각면원구, 찍개류 그리고 굽개류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많지 않은 박리면으로 덮여 있고 2차 가공을 보이는 것의 수효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출토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비롯한 석기문화는 한반도의 전기 구석기문화를 대표하는 석기공작으로 그 양이나



한반도의 전기 구석기의 특징은 석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하고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단일유적으로서의 규모 등에 있어서 단연 최대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전기 약 40만년 전의 전기로부터 약 4만년 내지 5만년 전의 유적이라는 설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설의 범위가 가장 큰 유적의 하나이다.

### ② 중기 구석기시대

중기 구석기는 일반적으로 석기공작에서 조정된 타격면을 이용한 석기 제작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나 동아시아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기법, 즉 르발르와기법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부 홍적세의 초기, 즉 약 10만 년 전에서부터 약 3만 5천년 전까지의 시기에 속하는 석기 공작을 지칭하기도 한다. 중기 구석기시대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Homo sapiens들은 죽은 자를 매장한 흔적이나 신앙의 흔적들, 그리고 원시적인 조각예술품들을 남기기 시작한다.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르발르와기법이 현저하지 않고 소형석기는 증가하게 되는데 많은 지역에서 전기 구석기시대의 원시적인 석기전통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주먹도끼의 전통이 두드러지게 발달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후기 구석기시대

후기 구석기는 좁고 긴 돌날이 등장함으로써 시작되는 시기이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략 3만년 내지 5만년전에서부터 약 1만년 전의 빙하가 끝날 무렵까지의 시기에 나타난다. 돌날은 흔히 췌기를 대고 때리는 간접타격이나 가슴눌러떼기의 기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가공에도 눌러떼기의 기법이 대단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돌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석기들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석기로는 끝굵개와 손잡이가공칼 등의 석기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조각도(彫刻刀)라는 특이한 석기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골각기제작을 위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후기 구석기는 현생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예술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장신구·조각품이나 동굴벽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중기 구석기시대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Homo sapiens들은 죽은 자를 매장한 흔적이나 신앙의 흔적들, 그리고 원시적인 조각예술품들을 남기기 시작한다.



후기 구석기는 현생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2) 광양의 구석기시대 유적 및 유물



사진2-2 : 구석기시대 유물-  
몸돌(봉강면 서석)

최근에 들어서 광양 지역의 가장 큰 고고학적 성과라면 구석기유적의 확인일 것이다. 광양에서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인근의 순천시 덕산리·우산리·죽내리, 곡성군 제월리, 보성군 주산리 등에서 확인된 바가 있어 발견 가능성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19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광양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봉강면 석사리 서석, 옥곡면 대죽리 대치, 옥룡면 용곡리 흥룡·용곡리

옥동·죽천리 죽림, 진상면 지원리 창촌 유적 등 총 6개소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순천대박물관, 2000, 『문화유적분포지도-광양시-』). 입지는 구릉이나 언덕이며, 해발고도로는 50~100m에 해당한다. 출토유물은 대개 석영암 자갈 재질의 몸돌·돌날·여러면 석기·격지·찍개 등이다. 용곡리 옥동유적의 경우, 출토유물로 보면 후기구석기시대의 늦은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유적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8편 제5장에서 하기로 한다.

〈표2-1〉 광양시의 구석기유적 현황				
일련 번호	유적의 위치	입지 및 면적	해발고도	출토유물
1	봉강면 석사리 서석	구릉	40-50m	석영암 자갈의 여러면 석기
2	옥곡면 대죽리 대치	구릉(약 6천평)	50-75m	석영암 자갈돌 재질의 몸돌
3	옥룡면 용곡리 흥룡	구릉(약 9천평)	50-100m	석영암 자갈로 된 몸돌
4	옥룡면 용곡리 옥동	구릉	50m	산성용암에서 떼어낸 돌날
5	옥룡면 죽천리 죽림	구릉(약 3만평)	100-140m	석영암 격지
6	진상면 지원리 창촌	구릉	50m	석영암 자갈돌로 제작된 찍개

## 2. 신석기시대

### 1) 시대개관<sup>2)</sup>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200만년 전인 홍적세(洪積世) 초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홍적세는 기후 변동이 심하여 빙하기와 간빙기가 되풀이되었고, 그에 따른 해수면의 변동과 동식물의 분포 변동이 빈번한 시기였다. 그러다가 약 1만년 전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기후의 극한 변동은 대체로 종식되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양극지방의 두꺼운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툰드라지역이었던 곳은 삼림지대로 바뀌었고 기후는 전반적으로 보다 온난다습해졌다.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라 하면, 바로 이 후빙기의 새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원시농경과 목축에 의한 식량생산을 하게 되어, 그 배경으로 인류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를 말한다. 아주 오랜 기간의 구석기시대의 저급한 수렵·채집 경제를 벗어나,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농경이나 목축을 기반으로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면서 토기 및 마제석기를 사용하고 직물기술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문화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실로 인류문화발달사상 새로운 전기를 이룩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빙기 이후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문화들이 전개된 것은 아니다. 유라시아지역이나 극동아시아지역 등지에서는 농경이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말한 신석기적 특성을 지닌 문화가 번성하였던 것이다. 이 지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문화도 농경을 배경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마제석기와 토기 등 신석기적 문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신석기시대라고 하는 것은 유럽 중심의 개념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는 신석기시대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홍적세 이후 최초의 토기출현으로부터 금속기 사용 이전까지, 주로 어로 및 수렵·채집에 의하여 전개된 토기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된다.

한국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문화로 빗살무늬토기문화를 들 수 있다. 토기의 모양은 밑이 뾰족한 포탄형을 하고 있는 것과 밑이 납작한 항아리나 화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토기표면에 무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늬는 빗같이 생긴 무늬새기개를 가지고 누르거나 새겨서 생긴 선 또는 점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

2) 임효재, 1991, 「신석기시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농경이나 목축을 기반으로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면서 토기 및 마제석기를 사용하고 직물기술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문화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실로 인류문화발달사상 새로운 전기를 이룩한 것이었다.

한 무늬모양이나 그릇의 형태가 북방유라시아의 캄케라믹(Kammkeramik)이나, 바이칼지방, 소련의 연해주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토기들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신석기토기는 캄케라믹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었고, 빗살무늬토기(즐문토기)라는 명칭도 캄케라믹을 그대로 번역한 데서 유래되었다. 이제까지 이들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된 한반도의 유적은 약 130개소 정도가 된다. 이들은 한반도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큰 강가, 해안가·호숫가·섬 등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분포양상만을 보아도 당시 생활이 어로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유적에서 낚싯바늘이나 어망추가 많이 발견되는 점은 다시 이러한 사실을 뚜렷하게 뒷받침해준다. 한편, 석창이나 석촉과 같은 수렵구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수렵에 의한 식량확보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말하여 주며, 나무열매나 뿌리 등의 채집도 보조 수단이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신석기인들은 물가의 평평한 사질퇴적지, 또는 물가에 가까운 산 경사면에 땅을 파고 들어간 수혈주거지(움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주거지가 발굴 조사된 암사동의 경우 4, 5채 정도가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주로 어로 및 수렵·채집에 의존하여 전개되었던 신석기문화가 말기에 접어들자, 서해안의 일부지역에서는 원시농경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중국 화북지방의 농경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신석기시대 후기의 농경을 입증하는 유적은 아직 1, 2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맹아적(萌芽的)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한국 신석기문화는 어로 및 수렵·채집에 의하여 전개된 문화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의 최고(最古)연대는 서기전 5000년경의 강원도 양양 오산리 하층, 부산 동삼동 하층의 예를 들 수 있고, 가장 늦은 연대는 서기전 1000년경의 경기도 시도유적(矢島遺蹟)을 들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서기전 5000년경부터 서기전 1000년경까지 약 4000년간 존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기전 1000년 전후에는 본격적인 농경을 배경으로 전개된 청동기 문화의 융성으로 신석기문화의 대부분은 강력한 청동기 문화에 그대로 흡수, 동화되어 버렸고, 일부 도서지방에서만 그 뒤에도 신석기적 요소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한국 신석기문화는 어로 및 수렵·채집에 의하여 전개된 문화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 2) 광양의 신석기시대 유적 및 유물

광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2개소로서 모두 조개무지(貝塚)이다. 진월면 오사리 둔탁 패총과 진월면 진정리 중산 패총이 그것이다. 이들 패총은 섬진강과 수어천의 하류변의 낮은 구릉에 자리한다. 잘 남은 패각층의 두께는 120~150cm정도이며, 수습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과 동물뼈, 패각 등이 있다. 빗살무늬토기편은 세선집선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사질의 태도에 표면을 빗질한 흔적이 보인다. 동물뼈는 사슴뼈가 대부분이며 패각은 굴껍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산 패총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외에도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회색 연질토기,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유적이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李榮文·鄭基鎭, 1993, 「光陽郡의 考古遺蹟」, 『光陽郡의 文化遺蹟』, 順天大學校 博物館.). 이들 유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사진2-3 : 신석기시대 유물- 빗살무늬토기편 (진월면 둔탁마을)

3) 유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8면 제5장에서 하기로 한다.

〈표2-2〉 광양시의 신석기시대 유적 현황				
일련 번호	유적의 위치	범위	입지 및 해발고도	출토유물
1	진월면 오사리 둔탁	100×200m	낮은구릉, 10~15m	빗살무늬토기편, 동물뼈, 패각 등
2	진월면 진정리 중산	길이 20m	낮은구릉, 5~10m	빗살무늬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회색 연질토기, 무문토기편 등

## 3. 청동기시대

### 1) 시대개관<sup>4)</sup>

#### (1) 개설

인류가 청동기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청동기시대가 있었음을 규명한 것은 광복 후 우리나라 고고학이 거

4) 윤무병, 1991, 「청동기시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에 토기·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집단들의 문화를 우리는 무문토기문화(無文土器文化)라고 부르기도 한다.

둔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청동기제작은 서기전 1000년기의 후반에 이르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청동기 그 자체의 사용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개시되고 있었다. 이른바 요령(遼寧) 청동기 문화의 소산인 유물들이 우리 국토에서 간혹 발견되고 있으며 그 수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청동기가 제작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에 요령지방과 한반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문화권(文化圈)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생각은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근소하게 발견된 청동기와는 달리 유적에서 다량으로 발굴되는 토기·석기들은 요령지방의 그것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에 토기·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집단들의 문화를 우리는 무문토기문화(無文土器文化)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문토기문화의 성립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비로소 농경문화의 단계에 도달하였고, 한편으로는 청동기의 사용이 시작되었으며, 곧 이어서 그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무문토기의 제작자들은 그 뒤 이 땅에 정착하여 오늘날 한민족의 조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학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넓은 뜻에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제작된 청동기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부에서나마 사용이 시작되는 그때부터를 청동기시대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더 엄격하게 따져서 청동기에 대한 주조기술이 습득된 이후를 가리켜서 청동기시대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입장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가 우세해진 결과 무문토기문화의 전반(全般)을 청동기문화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 (2) 연대와 편년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의 연대는 서기전 10세기경부터 시작되어 서기전 4세기 전후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연대에 대하여서는 이론이 많으며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개시연대에 대하여서는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서기전 10세기보다 약간 소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시기에는 아직도 석기문화(石器文化)가 지배적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편년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청동기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형식변천과 공반관계(共伴關係)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하여 시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동검(銅劍)의 형식분류에 따라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요령식(遼寧式) 동검시기, 제2기는 I식세형동검시기, 제3기는 II식세형동검시기이다.

### (3) 생업경제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는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고 수렵과 어로를 보조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농경생활의 보급은 곡식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된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의 광범위한 분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반월형석도의 발견은 국토의 거의 전역에 미치고 있다.

남한에 있어서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은 대개가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주로 밭농사에 의존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농업경영의 구체적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경작용의 석기로서는 함경북도지방과 압록강 중류지역에서 발견된 철자형(凸字形) 타제석부 이외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 목제농구가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수확용의 석기로서는 위에 말한 석도 이외에 소수의 돌낫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수확된 뒤의 곡물에 대한 가공용구로서는 상석·하석 두 개를 한 세트로 사용하는 연석(碾石)이 발견된다. 한편, 재배곡물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북한지역에서는 기장·수수·조, 그리고 콩·팥 등으로 생각되는 탄화곡립(炭火穀粒)이 발견된 사례가 무산 호곡동, 회령 오동 등지에서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농경민들이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수렵과 어로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긴 유물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어업관계의 도구는 물가에 가까이 위치한 유적에서 석제 또는 토제어망추(土製漁網錘)가 발견되며, 또 그물용의 샷바늘이 발견된 예도 있다. 그러나 어업관계 자료는 대체로 미미한 형편이고, 또 이 시대에는 패총(貝塚)을 형성한 유적이 드문 사실로 미루어보아 어로활동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4) 취락과 주거

현재까지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바 있는 취락유적으로는 경기도의 수석리유적·혼암리유적, 충청남도의 송곡리유적·해미유적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강변에 위치한 구릉이나 또는 작은 하천평야를 앞에 둔 구릉지대에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는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고 수렵과 어로를 보조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지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취락 중에는 시기적으로 중복된 주거지들을 동반한 유적들이 많으며 취락형성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거형식은 신석기시대를 이어서 수혈식가옥이 계속되고 있다. 가옥의 규모도 발전되었으며, 특수한 예이기는 하나 옥석리의 주거지는 길이 15.7m, 너비 3.7m이며 내부면적이 58㎡에 달하고 있다. 가족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을 3㎡로 가정한다면 노지(爐址) 등이 있는 자리를 제외하고도 약 17명이라는 대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보통 발견되는 수혈의 면적은 길이 5~6m, 너비 3~4m 가량 되는 것이 많으며, 가족구성은 5, 6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수혈 내부의 시설로서는 노지와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판 구멍자리, 배수구 등이 발견된다. 실제로 생활할 때에는 주거지 바닥 위에 짚 같은 것을 깔았으리라고 생각된다.

## (5) 분묘

### ① 석관묘

가장 전형적인 것은 네 벽과 바닥 및 뚜껑을 각각 1매의 판돌로 조립한 것인데, 이것을 석상분(石箱墳)이라고도 한다. 평안남도과 황해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른바 석관묘로 분류되는 무덤들 중에는 작은 판돌들을 연결하여 관을 조립한 것과 냇돌 또는 괴석을 혼용한 것이 있으나, 이들은 남방식지석묘의 하부구조로 결합된 경우가 많다.

### ② 지석묘

한국고고학 분야에서 가장 길고 다채로운 연구사를 가지고 있는 분묘유적이다. 종래에는 북방식(탁자식)과 남방식(바둑판식)의 두 형식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남방식 중에는 지석이 없는 특수형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북방식의 특징은 유해를 안치하는 묘실이 지상에 구축된 것이고, 남방식은 지하에 시설되었다. 무지석식(無支石式)은 지상에 놓이는 거석(巨石)이 묘실에 대하여 직접 뚜껑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석식(蓋石式) 또는 변형식지석묘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내부에서 발견되는 부장품과 형식 구조상의 변천과정으로 미루어보아 탁자식→개석식→바둑판식의 순서(또는 북방식→남방식→개석식의 순서라는 견해도 있음)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 ③ 적석총(積石塚)

적석총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유적에서의 발견은 매우 드



지석묘-한국고고학 분야에서 가장 길고 다채로운 연구사를 가지고 있는 분묘유적이다.

물다. 오히려 고구려 적석총이나 신라의 적석목곽분과 같이 역사시대의 유적에서 그 존재가 뚜렷하다. 선사시대의 것으로는 춘천 천전리에서 북방식 지석묘들과 한 지역내에서 발견된 것이 유일한 예가 된다. 구조는 지면 바로 밑에다가 1개 내지 수개의 소형석관을 마련하고 그 상부를 적석으로 덮은 것이다.

#### ④ 토광묘(土壙墓)

토광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매장시설로서 목관 또는 간단한 목곽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있다.

#### ⑤ 옹관묘(甕棺墓)

위에서 말한 토광묘와 같은 시기에 사용된 또 하나의 분묘 형식이다. 김해 회현리에서 합구식(合口式)의 옹관묘가 발견된 바 있으며, 그 하부에서 세형동검들이 같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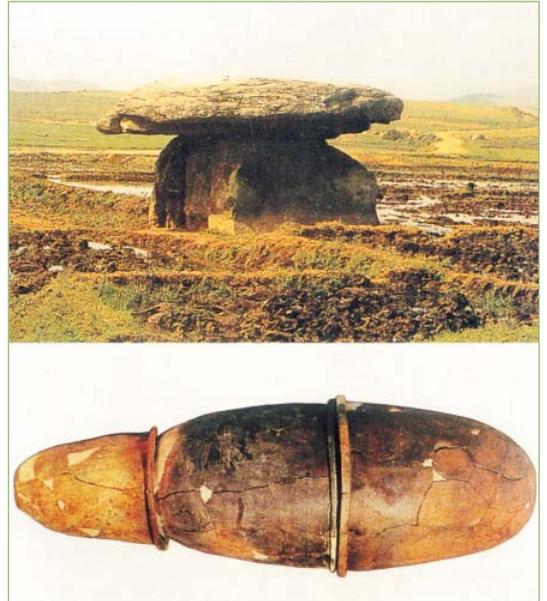


사진2-4 : (위)옹동리 고인돌-함남 배천읍 옹동리 (아래)옹관묘-평양 삼석구역 남경유적 출토

## 2) 광양의 청동기시대 유적 및 유물

전술한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유적은 무덤과 생활유적으로 대별된다. 무덤유적으로는 지석묘·석관묘·석곽묘·적석묘·토광묘·옹관묘 등이 있지만, 광양에서 확인된 것은 지석묘가 대부분이고 지석묘 주변에서 일부 석곽묘나 석관묘가 발견되는 정도이다. 한편, 생활유적으로는 조개무지(貝塚)·집자리(住居址) 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거지만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의 조개무지는 조사 사례가 드문 만큼, 광양에서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광양의 청동기시대유적은 지표조사한 내용과 발굴조사한 내용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지표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2-3>, <표2-4>와 같이 지석묘와 유물산포지로 구분지어볼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광양시의 지석묘는 다음 표와 같이 모두 44개군 282기이다. 지석묘의 형식상, 북방식(탁자식)은 보이지 않고 남방식(바둑판식)이나 개석식만 확인된다. 그리고 남방식보다는 개석식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읍·면 단위로 지석묘를 구분해보면, 광양읍 13개군 73기, 옥룡



청동기시대 유적은 무덤과 생활유적으로 대별된다.

면 13개군 105기, 봉강면 8개군 71기, 진상면 3개군 17기, 옥곡면 3개군 11기, 다압면 3개군 4기, 진월면 1개군 1기 등이다. 이러한 통계치를 보면 옥룡면에 지석묘가 가장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일 군집으로는 봉강면 지곡리 각비 지석묘군 I (36기)과 옥룡면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I (44기)이 가장 밀집된 지석묘군임을 알 수 있다<sup>5)</sup>.

상기한 바와 같이 광양읍·옥룡면·봉강면은 광양시 권역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3개 읍·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분되지만 같은 수계권이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한 생활문화권임을 알 수 있다. 즉 광양읍을 통해서 광양만으로 入海하는 東川과 西川은 옥룡면과 봉강면에 源流를 두고 있다. 그리고 옥룡면과 봉강면의 지석묘군들이 모두 남쪽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기에 광양읍의 지석묘군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이들 3개 밀집권역이 각기 별개의 지석묘 집단일수도 있다. 즉 3개 밀집권역에는 중심되는 지석묘군이 있고, 3개 권역 간에는 3~5km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형상으로도 구분된다. 즉 3개 밀집권역에서 중심되는 지석묘군은 광양읍의 덕례리 지석묘군, 봉강면의 지곡리 지석묘군, 옥룡면의 산남리 지석묘군 등이다. 기존의 발굴조사 성과를 보면 10기 이상의 상석이 있는 지석묘군은 하나의 친족집단이 7~8세대 이상(200년 이상)의 누세대에 걸쳐 지석묘를 축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3개 밀집권역은 각기 별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청동기시대의 광양시권역에서 중심지역은 현재의 광양읍 외에도 봉강면과 옥룡면의 남쪽에 걸친 범위로서, 크게 3개의 소중심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를 거쳐 三韓時代(全南地方의 경우에는 馬韓)에는 小國이 형성되었다고 문헌에 전하는데, 광양지역의 경우에는 萬盧國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sup>6)</sup>.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광양지역에서의 삼한시대의 고고학적 성과, 삼한시대의 소국이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사회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양지역의 소국은 현재의 광양읍 일대에 비정할 수 있다. 小國의 중심지인 國邑은 대개 넓은 평지에 인접하고 정상부가 평탄한 공간을 지닌 낮은 야산이나 구릉에 입지한다. 정상부의 평탄한 공간내에는 주거공간이 자리하고, 그 가장자리로는 환호(環濠)와 목책(木柵)을 둘러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를 광양읍 인근에서 찾아보면 교촌리 일대의 구릉지대일 것이다. 이곳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북

5) 전남지방이 한반도에서 가장 지석묘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30기 이상의 지석묘군은 드문 편이다. 따라서 광양시 권역에서 30기 이상인 봉강면 지곡리 각비 지석묘군 I (36기)과 옥룡면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I (44기)의 2개 지석묘군은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방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유창균, 1983, 『한국고대한자음의 연구』Ⅱ, 영남대학교출판부.

쪽을 제외한 三面に 걸쳐 동천과 서천이 흐르면서 감싸는 한편, 북쪽으로 내우산(해발 246m)이 막고 있어 방어적 입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러한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이곳은 조선시대 이래로 향교 등의 공공건물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청동기시대~삼한시대의 유적이 적지 않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이 일대가 형질이 변형되고 있다. 요컨대 광양시 차원에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간단한 학술조사(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유무와 범위를 확인하여 향후 정비·복원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7)</sup>.



7) 교촌리 이외의 삼한시대의 거점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덕례리 회암·예구 마을 뒤편 야산이다. 이곳은 이미 아파트와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지형이 많이 변하였으며, 다수의유적이 파괴되었다. 덕례리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지석묘가 다수 확인된 것 외에도, 『光陽郡誌』에서도 언급되었다. 심지어 이곳에서 청동기시대~삼한시대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는 일부 토루(土壘)가 확인되고 있어 정밀한 학술조사가 요구된다.

사진2-5 : 지석묘(봉강면 각비마을)

〈표2-3〉 광양시의 지석묘 현황					
연번	유적명	기수	연번	유적명	기수
1	광양읍 덕례리 덕산 지석묘군 I	7	23	봉강면 지곡리 각비 지석묘II	1
2	광양읍 덕례리 덕산 지석묘군 II	8	24	봉강면 지곡리 각비 지석묘군 III	7
3	광양읍 덕례리 덕산 지석묘군 III	7	25	옥곡면 신금리 신기 지석묘군	2
4	광양읍 덕례리 덕산 지석묘군IV	5	26	옥곡면 원월리 지석묘군	6
5	광양읍 덕례리 동주 지석묘군	6	27	옥곡면 원월리 신촌 지석묘군	3
6	광양읍 덕례리 예구 지석묘군 I	11	28	옥룡면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I	44
7	광양읍 덕례리 예구 지석묘군 II	13	29	옥룡면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II	2
8	광양읍 덕례리 회암 지석묘	1	30	옥룡면 산남리 산본 지석묘군 I	10
9	광양읍 도월리 신도 지석묘군	3	31	옥룡면 산남리 산본 지석묘군 II	6
10	광양읍 용강리 기두 지석묘군 I	4	32	옥룡면 산남리 산본 지석묘군 III	2
11	광양읍 용강리 기두 지석묘군 II	4	33	옥룡면 산남리 산본 지석묘IV	1
12	광양읍 용강리 와룡 지석묘	1	34	옥룡면 산남리 산본 지석묘V	1
13	광양읍 인서리 지석묘군	3	35	옥룡면 용곡리 초암 지석묘	1
14	다압면 도사리 다사 지석묘 I	1	36	옥룡면 운평리 하평 지석묘군 I	2
15	다압면 도사리 다사 지석묘군 II	2	37	옥룡면 운평리 하평 지석묘군 II	3
16	다압면 신원리 내압 지석묘	1	38	옥룡면 운평리 하평 지석묘군 III	1
17	봉강면 석사리 동석 지석묘군	5	39	옥룡면 용곡리 옥동 지석묘군	4
18	봉강면 석사리 명암 지석묘군 I	13	40	옥룡면 율천리 울곡 지석묘군	12
19	봉강면 석사리 명암 지석묘 II	1	41	진상면 금리리 섬거장터 지석묘군 I	5
20	봉강면 석사리 서석 지석묘군	7	42	진상면 금리리 섬거장터 지석묘군 II	2
21	봉강면 석사리 옥현 지석묘	1	43	진상면 섬거리 지석묘군	10여기
22	봉강면 지곡리 각비 지석묘군 I	36	44	진월면 선소리 선소 지석묘	1

〈표2-4〉

광양시의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현황

연번	유적명	입지	출토유물
1	중마동 길호 유물산포지	바다	석부·석검 각 1점, 석촉 2점
2	광양읍 덕례리 회암 유물산포지	구릉	석촉, 무문토기
3	광양읍 덕례리 회암 유물출토지	산기슭	석검·석촉 각 1점
4	광양읍 세풍리 해창 유물산포지	구릉	원형점토대토기, 석기편, 우각형파수
5	광양읍 용강리 기두 유물산포지	구릉	무문토기
6	광양읍 용강리 관동 유물산포지	구릉	무문토기
7	봉강면 석사리 명암 유물산포지	구릉	무문토기
8	봉강면 석사리 서석 유물산포지	구릉	무문토기
9	봉강면 지곡리 각비 유물산포지	산기슭	무문토기
10	옥곡면 원월리 상원 유물산포지	구릉	석검편, 무문토기
11	옥룡면 산남리 남정 유물산포지	구릉	석검편
12	옥룡면 산남리 산본 유물산포지	구릉	무문토기

그리고 광양시 권역에는 유물산포지 12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광양읍에 5개소가 있기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물산포지는 지표상에서 유물이 발견된 곳을 의미하는데, 지표하에 생활유적이거나 무덤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무문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석검(돌칼), 석촉(돌화살촉), 석부(돌도끼) 등이다. 12개소의 유물산포지 가운데 2개소(광양읍 용강리 기두·용강리 관동)가 발굴조사되었는데, 대부분 생활유적인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들 유물산포지의 입지를 보면 대개 얇은 구릉이나 산기슭이 많아서 주거지의 입지에 적당한 지형이다. 따라서 지식묘가 지표상에 보이는 무덤 유적이라면, 유물산포지는 생활유적이 폐기된 후 지하에 매몰된 유적이 대부분인 셈이다. 12개소의 유물산포지 가운데 중마동 길호 유물산포지는 특이하게 바다에서 유물이 출토된 경우이다.

한편, 광양읍 세풍리 해창(유자섬) 유물산포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유자섬은 현재는 육지화되었지만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섬이었던 곳이다. 원형점토대토기는 청동기시대후기에 등장하는데, 절대연대상으로는 기원전 4~2세기 무렵으로서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외래적 토기 양식이다. 원형점토대토기는 일반적인 무문토기에 비해 발견례가 흔치 않아 중요한 유물이다.

광양시 권역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유적은 모두 2개소인데, 옥곡면 원월리 지식묘와 광양읍 용강리 유적이 그것이다. 광양읍 용강리 유적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즉 용강택지개발을 하면서 2차례, 용강초등



광양시 권역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유적은 모두 2개소인데, 옥곡면 원월리 지식묘와 광양읍 용강리 유적이 그것이다.

학교 신축부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1차례 등 모두 3회이다.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분묘(지석묘 및 석곽묘)와 주거지인데, 먼저 분묘에 대해 살펴보자.

〈표2-5〉 광양시의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분묘				
번호	유적명	상석수	하부 구조수	출토유물
1	옥곡면 원월리 지석묘	6	5	석검, 석촉, 흉도, 숫돌, 무문토기, 유구석부
2	광양읍 용강리 기두 '가' 지석묘	4	36	무문토기, 흉도, 돌끌1점, 마제석검2점, 마제석촉2점, 小玉3점
3	광양읍 용강리 기두 '나' 지석묘	4	18	마제석검4점, 마제석촉3점, 석척1점, 무문토기, 흉도, 환옥2점, 관옥8점
4	광양읍 용강리 기두 '나' 석곽묘	없음	1	흑도1점, 마제석촉4점

이와 같이 上石(덧개돌)이 있는 지석묘 3개소 14기를 조사하였는데, 하부구조수는 60기에 달한다. 원월리 지석묘는 상석수와 하부구조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용강리의 2개 지석묘군에서는 상석수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용강리의 상석이 있는 8기의 지석묘에서 하부구조가 없는 것이 3기가 되고 있다. 이들 3기는 원래부터 하부구조가 없음이 확인되어 묘표석(墓標石)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묘표석을 중심으로 상석이 없는 다수의 석곽들이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양지역에 산재하는 44개군 282기의 지석묘의 실제 매장주체부는 1,000기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두 '가' 지구나 기두 '나' 지구의 지석묘와 석곽묘들은 3~4개의 소군집으로 다시 세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친족내의 구분일 것으로 보인다. 지석묘의 피장자 가운데에서도 우열이 존재하고 있음은 유물에서의 차별성에서 뒷받침된다. 예컨대 기두 '나' 지구의 6호석 곽묘는 신전장(伸展葬)이 가능한데, 마제석검 외에 玉 10점이 출토되어 다른 석곽묘에 비해 두드러진 유물이 부장된 것이다.

그리고 기두 '나' 지구의 지석묘 군집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1기의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확인되었는데 유물부장양상이 주목된다. 이 석곽묘는 원래부터 上石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흑도 1점 이외에 마제석촉이 4점인데, 삼각만입석촉과 이단경식석촉이어서 주목된다. 유물상으로 보면



사진2-6 : 마제석검(옥곡면 원월리)

이 석곽묘는 일반적인 지석묘보다 이른 靑銅器時代 前期에 해당하기에, 지석묘 출현기의 청동기시대 묘제(墓制)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발굴조사된 주거지에 대해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6〉 광양시의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번호	유적명	기수	주거지 평면형태	출토유물
1	광양읍 용강리 기두'가' 지구	8	타원형	마제석검, 마제석촉, 유구석부, 숫돌, 홍도, 무문토기
2	광양읍 용강리 관동'가' 지구	3	장방형,타원형	석착, 방추차3점, 석도, 숫돌, 마제석촉, 무문토기, 홍도, 환옥1점
3	광양읍 용강리 관동'나' 지구	14	원형,말각방형	무문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숫돌, 홍도, 방추차
4	광양읍 용강리 용강초등학교 신축부지	21	제형, 방형, 말각방형, 타원형	석촉(石鏃), 석착(石鑿), 유구석부(有溝石斧), 석도(石刀),망치돌, 숫돌, 연석, 미완성 석제품, 무문토기, 홍도



사진2-7 : 타원형 주거지(광양읍 관동마을)

이와 같이 광양읍 용강리 기두와 관동마을 뒤편 저평한 구릉에서는 모두 46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모두 동시대인 것은 아니지만, 청동기시대에 이렇게 많은 수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자연취락은 10~20기의 주거지가 산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동기시대 당시에 용강리 일대가 광양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취락의 하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46기의 주거지가 용강리에서 살았던 청동기시대인들의 모든 주거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용강초등학교부지는 면적이 좁아 거의 빠트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였지만, 이보다 훨씬 넓은 용강리 택지개발지구(창덕에버빌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1/3도 못미치는 범위만 조사하였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용강리 택지개발지구에서 75기 내지, 많게는 100기 정도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다. 광양 용강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더불어 철기시대의 주거지들도 같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입지를 보면 후대의 철기시대 주거지들이 상대적 경사가 급한 곳에 자리하고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광양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는 모두 송국리형 주거지이다. 즉 주거지의 중앙에 타원형 작업구덩이가 있으면서, 작업구덩이 내·외

에 주공이 있는 형식이다. 타원형수혈과 중심주공(柱孔) 외에도 주거지에는 노지(爐址), 출입시설, 구(溝) 등의 내부시설이 있다. 타원형수혈은 일반적으로 석기제작용이라고 하는데, 타원형수혈 내부에는 석기제작에 필요한 물이 저장되었을 것이다.

용강리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계형(梯形), 장방형, 원형, 방형, 말각방형, 타원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말각방형이나 타원형이 주종을 이룬다. 주거지의 주축방향은 대부분이 등고선과 나란하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석기류의 종류는 석촉(石鏃), 석착(石鑿), 유구석부(有溝石斧), 석도(石刀), 망치돌, 숫돌, 연석, 미완성 석제품 등이다. 이들 유물은 당시에 개별 주거지내에서 직접 제작되었던 유물이다. 즉 당시에는 석기류가 대부분 자급자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에서 석기 제작과 관련된 숫돌, 망치돌이 셋트로 출토되고 있다. 출토된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숫돌은 대부분 사암제이다. 광양 용강리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연대는 절대연대·주거지의 형식 등에 근거해보면, 송국리형 주거지 단계(靑銅器時代 中期)인 기원전 8세기~4세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광양 용강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간에 중복되었거나 청동기시대 석곽묘와 주거지가 겹쳐진 양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축조되어 있어 상호 선후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

## 4. 철기시대

### 1) 시대개관

#### (1) 개설<sup>8)</sup>

광의의 철기시대는 인류가 철을 이용하여 도구로 사용하게 된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고고학에서의 시대구분은 19세기 덴마크 국립박물관의 톰센(Thomsen, Ch. J.)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인류가 사용한 재질에 따라, 석기시대(Stone Age)·청동기시대(Bronze Age)·철기시대(Iron Age)



광양 용강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간에 중복되었거나 청동기시대 석곽묘와 주거지가 겹쳐진 양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축조되어 있어 상호 선후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

8) 한병삼, 1991, 「철기시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의 세 시대로 인류문화 발전과정을 구분하였다. 사실 고대문명의 발상지들이나 기타 선진문화지역에서는 이러한 3시대의 발전과정이 분명하다. 그러나 주변적·후진적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다음에 청동기시대를 거치지 않고 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예가 적지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철기시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톰센의 3시대 구분은 문자발명이전의 선사시대이나 적용되는 것이다. 문자사용이 보급되고 동시대의 문헌이 많이 남아 있는 시대에까지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중국의 전국시대나 한나라시대 또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도 철기시대임에 틀림없으나, 이를 철기시대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2) 사용과 전파<sup>9)</sup>

철은 인류가 도시와 국가를 형성한 문명 단계에 들어선 단계에서 개발되어, 청동기를 잇는 새로운 금속기로 등장하였다. 청동에 비해서 철의 원료는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야철기술(冶鐵技術)만 습득하면 생산이 가능하였으며, 뒤에 강(鋼) 제조기술이 발명됨으로써 예리한 무기(利器)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곧 고대통일국가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 철의 발상지는 서아시아의 아나토리아(Anatoria) 지방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아시아 각지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철기들은 서기전 3000~2000년에 걸친 것들이다. 이 시기의 철기는 운철(隕鐵)로 만든 장신구나 도자류(刀子類)에 지나지 않는다. 운철은 자연철이어서 원료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기의 제작도 산발적이고, 보급도 되지 못하였다. 야철기술을 개발하여 인공철을 최초로 만든 것은, 아나토리아지방에 살던 칼리베스(Chalybes)인이라는 설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나토리아고원에 출현한 히타이트(Hittite) 제국(서기전 1450~1200)이 철을 독점생산하여 이것이 뒤에 서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서아시아에 있어서의 철은 서기전 1200년경 히타이트제국이 멸망한 뒤 급속히 사방으로 퍼졌다는 사실은 근년의 고고학조사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대체로 메소포타미아지방은 서기전 13세기, 이집트는 서기전 12세기, 이란은 서기전 10세기, 그리고 유럽은 이보다 약간 늦은 서기전 9, 8세기경에야 철이 보급되었다. 한편, 서기전 8세기경에는 북방 흑해 연안에도 야철술이 전파되어 이 지방 주민들의 기마유목화(騎馬遊牧化)를 촉진하게 하여 스키타이(Scythai)문화를 꽃피우게 하였다. 스키타이유목족

9) 한병삼, 1991, 「철기시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동에 비해서 철의 원료는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야철기술(冶鐵技術)만 습득하면 생산이 가능하였으며, 뒤에 강(鋼) 제조기술이 발명됨으로써 예리한 무기(利器)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에 전파된 철기문화는 동방으로 퍼져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파급되었다. 중국에 있어서는 은주시대(殷周時代)에 운철로 가공한 몇 개의 철 제품이 발견된 바 있으나, 인공철은 춘추시대말에서 전국시대 초기에 등장한다. 전국시대 후반에 들어서면 철기의 보급이 현저하게 진전되나, 출토유물들의 공구(工具)나 농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국시대말에서 전한초에 걸쳐서 철의 생산이 급진전되나, 여전히 주조(鑄造)로 된 농공구가 주이고 무기는 청동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 강(鋼)의 생산이 매우 늦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한말에서 후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강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철제대도(鐵製大刀)와 같은 무기가 등장한다.



사진2-8 : 철기시대의 각종철기

### (3) 우리나라 철기시대의 시기구분<sup>10)</sup>

우리나라의 철기시대는 종래의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즉 문화단계상 철기가 사용되는 시기부터 진정한 의미의 고총고분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기인 것이다. 연대상으로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후 300년경까지의 약 600여 년간이 된다. 이 시기는 일단 철기 제조기술의 발전 및 철기의 파급과 그에 따른 청동기의 소멸, 새로운 토기문화의 등장을 기준으로 대략 전·후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구분과 그 연대나 문화내용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철기시대 전기는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청동기가 완전히 소멸

10) 최몽룡, 1997, 「철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사3(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사진2-9 : 토광묘의 부장품 I  
(세형동검)

되고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철생산이 시작될 무렵까지인데, 절대연대로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전후한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시작은 청천강 이북을 포함한 요동지역에 분포하는 세죽리-연화보유형 유적들의 성립으로부터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구들시설을 갖춘 지상가옥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호미·괘이·삽·낫·도끼·손칼 등의 철제 농공구류와 함께 회색의 태토에 승석문을 타날한 토기가 나타났다. 주조철부를 비롯한 철제이기들은 대체로 중국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도 초기 주조기술에 의해 제작된 농공구류가 먼저 발달한 양상은 양자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형동검·세문경을 비롯하여 동모·동과·팔령구·동물형 대구·농경문 청동기 등 정교한 청동기가 제작되는 등 진술한 바와 같이 철기시대 전기의 대부분에 걸쳐 청동기가 성용하게 된다. 그

가운데에 세형동검과 세문경은 이 시기의 표지적인 유물로 이해되고 있다. 당시의 주거지 형태는 수혈식 주거가 일반적이지만 중강 토성리나 시중 노남리에서와 같이 외출의 온돌 구조가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곡식농사와 화전법이 실시되고 토기로는 흑색마연토기·점토대토기가 나타나며, 석기로는 유구석부·반월형석도·삼각형석촉·마제석검·편평단인석부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토광묘와 옹관묘가 묘제로서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동기와 고인돌 등 청동기시대의 몇몇 문화요소들이 소멸되는 반면 자체 수요를 넘어서 잉여생산을 할 정도로 철기생산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토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외에도 석곽묘의 발전, 귀족묘로써의 목곽묘의 발달, 농경, 특히 도작의 발달 등이 철기시대 후기의 문화적인 특색으로 꼽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미 북부지역에서 고구려가 온전한 고대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각지에 적석총이 축조되게 된다. 한편 남부지역에서 삼한사회가 고대국가로 발돋움해 가게 된다.

무기류·농공구류 등 철기의 제작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철기시대 전기에 나타나는 제철기술인 단조를 통한 철기제작의 예가 급증한다. 마장리·중도·이곡리·성산·친천 석장리 등지에서 발견된 冶鐵遺蹟은 그러한 제철기술상의 발전을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철기시대 후기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해식토기, 와질토기로 대표되는 새로운 토기문화의 등장이다. 이는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철기 제작기술이 여타의 사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이 시기의 변화상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 2) 광양의 철기시대 유적 및 유물

현재까지 광양의 철기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는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적의 숫자나 발굴조사된 유적이 많은 편이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 광양에서는 철기시대의 무덤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먼저 문화양상이 거의 유사한 전남동부지역의 철기시대 연구성과를 개괄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어, 아래에 기술해 본다.

철기시대의 유적으로는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철기시대의 무덤으로는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 토광묘(土壙墓), 옹관묘(甕棺墓), 주구묘(周溝墓) 등이 알려져 있다. 전남서부지역인 영산강유역에는 이들 묘제가 모두 확인되고 있지만, 전남동부지역의 경우는 양상이 좀 다르다. 즉 전남지방에서 적석목관묘는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에서 조사된 바 있지만, 영산강 수계이거나 전남서부지역이다. 그리고 옹관묘는 영산강유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한 묘제임에 반해,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옹관묘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영산강유역과 비교하면 그 예는 극히 적은 편이다. 보성 송곡리에서 1기가 발견된 데 한한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기원전 1세기대에 해당하는 옹관묘는 광주 신창동 53기, 광주 운남동 2기, 무안 인평 1기, 함평 장년리 3기 등으로 영산강유역이나 전남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주구묘는 현재까지 탐진강유역인 장흥지방까지는 보이고 있지만 그 동쪽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지석묘가 기원전 2세기를 전후로 하여 종말을 고하고, 기원전 2~1세기경부터는 토광목관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4세기대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토광목관묘는 순천 용당동 유적<sup>11)</sup>에서 확인되었는데, 늦은 시기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기원전후한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영광 군동의 토광묘나 주구묘, 당하산 토광묘 등의 장축 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이는 등고선과 나란한 용당동 토광묘와는 차이점이 보인다.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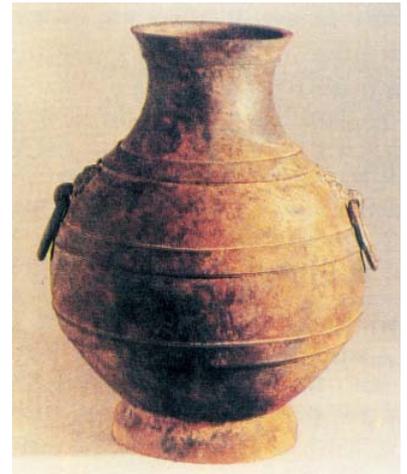


사진2-10 : 토광묘의 부장품  
11(청동항아리)

11) 일반적으로 土壙墓는 土壙直葬墓, 土壙木棺墓, 土壙木槨墓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순천 용당동 토광묘는 충전토의 존재에 의해 木棺이 확인되었으므로 '土壙木棺墓'라고 칭할 수 있다. 반면에 본고에서 토광묘로 통칭하는 것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용당동 토광묘 출토유물 가운데에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부장유물인 홍도가 매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용당동이 재지적인 성격이 잔존하여 지석묘와 같이 등고선과 같은 장축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당동 토광목관묘에 뒤이어 3~4세기대의 토광묘로써 순천 요곡리, 고흥 석봉리·한천리 토광묘 등이 있다. 전남동부지역의 토광묘에서는 영산강유역에서 빈출되는 玉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차별성이 보인다.

이렇듯 전남동부지역과 영산강유역간의 묘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적석목관묘와 주구묘가 서해안의 평야지대를 통해서 내려온 외래의 묘제임을 염두에 두면 전남동부지역이라는 산악지대에는 그 파급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해안 평지를 통해서 쉽게 전파되던 문화의 흐름이 전남동부지역이라는 산악지대에서는 그 파급이 미미하여 기존의 문화를 오랫동안 지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남동부지역에서 지석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다는 점과도 궤를 같이할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지석묘의 하한이 늦다는 것은 적석목관묘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동부지역에 있어, 기원전 3~2세기의 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에서 지석묘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의 뒷받침으로는 지석묘가 가장 밀집된 전남지역에서도 동부지역에 가장 많은 지석묘가 분포한다는 점과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末期의 圍石形 墓槨이 타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출토유물이 없는 위석형을 감안하면 전남동부지역에 있어 지석묘의 하한은 기원전 1세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남 동부지역에는 근래 들어 철기시대의 주거지가 다수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서 주거지가 밀집되고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유적들은 다음과 같다. 즉 순천 대곡리(93기)·낙수리(18기)·용당동(8기)·연향동(11기), 광양 용강리(166기), 여수 화장동(79기)·문수동(8기), 보성 조성리(31기) 등이다. 출토유물은 주로 토기류로서 편년의 근거가 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경질무문토기로부터 적갈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가 순차적으로 출토되는데, 각각의 토기 비율에 따라 연대를 달리 한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순천 연향동 주거지로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광양 용강리 유적은 전남동부지역에서는 가장 밀집된 주거지로서 기원전후한 시기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부터 가야계토기가 출토



광양 용강리 유적은 전남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밀집된 주거지로서 기원전후한 시기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부터 가야계토기가 출토되는 5세기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되는 5세기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주거지의 입지를 보면 보성강변의 충적 대지에 자리한 순천 대곡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릉지대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시기와 지역차를 잘 나타내주는 속성이다. 전남지방에서 마한과 관련되는 주거지는 원형계와 방형계의 평면형태로 구분되어진다. 타원형을 포함한 원형계 주거지가 10%미만인데 비해, 방형계 주거지는 86% 가량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전남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전남서부지역은 방형계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원형계는 5%에 불과하다. 반면 동부지역은 방형계가 75%(99기)로 주류를 이루지만 원형계 주거지도 15%(20기)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sup>12)</sup>. 광양 용강리유적이거나 여수 화장동 유적의 경우, 원형계 주거지의 비율이 절대적이다. 특히 광양 용강리 유적은 4~5세기대에도 원형계 주거지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남서부지역의 늦은 시기에 원형계 주거지가 보이지 않는 점과 비교된다. 용강리 유적의 철기시대 이후의 주거지 166기 가운데 그 평면형태를 알 수 있는 119기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원형계가 97기로 82%이며 방형계가 22기로 18%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원형계 주거지가 이르고, 방형계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후기인 4~5세기대에 편년된다.

광양의 철기시대 유적은 지표조사된 내용과 발굴조사내용으로 구분된다. 우선 지표조사된 유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지표조사된 유적은 모두 6개소로, 대부분 적갈색연질토기가 출토되는 유물산포지이다<sup>13)</sup>.

12) 최미숙, 2001, 『전남지방 철기시대 주거지연구』, 목포대석사학위논문

13) 유물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대개 무덤이나 주거유적이 확인된다.

〈표2-7〉 광양시의 철기시대 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출토유물
1	태인동 도촌 유물산포지	적갈색연질·회청색경질토기
2	광양읍 용강리 유물산포지	타날문이 시문된 발형 또는 심발형토기
3	봉강면 석사리 옥현 유물산포지	적갈색연질토기
4	봉강면 석사리 옥현 패총	적갈색연질토기, 사슴뿔을 이용한 刀子柄
5	진상면 섬거리 새뜸 유물산포지	적갈색연질토기(심발형토기)
6	진상면 청암리 도원 유물산포지	적갈색연질토기

한편 발굴조사된 광양읍 용강리 유적에 대해 살펴보자.

용강리 택지개발지구(458,745m<sup>2</sup>)는 용강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조성공사 지구이다. 모두 2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주거지(176기)가 확인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다



용강리 관동마을의 바로 북쪽에 인접한 저평한 구릉의 말단부에서 모두 67기의 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67기의 주거지 중 다수가 철기시대 후기(원삼국시대)의 주거지이다.

수의 주민이 거주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용강리 관동마을의 바로 북쪽에 인접한 저평한 구릉의 말단부에서 모두 67기의 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조사전에는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67기의 주거지 중 다수가 철기시대 후기(원삼국시대)의 주거지이다. 철기시대 후기 주거지는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되는데 원형이 앞선 시기로 판단된다. 원형의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타원형계의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외에 격자타날된 적갈색연질토기가 공반하는 양상을 보인다. 철기시대 후기의 주거지는 4-5세기대의 주거지에 비해 평면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특징이며, 벽구나 배수구 시설은 드물다. 철기시대 후기부터 3-4세기대까지의 爐址를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성이 엿보인다. 우선 평면적 위치를 보면, 노지는 대부분 주거지의 서쪽 혹은 서북쪽(주거지 입구에서 보면 향좌측)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이 방향은 겨울에 바람이 주로 불어오는 곳이기애 의외성을 띤다. 노지는 주거지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5cm 내외로 掘地하고, 길이 10-20cm의 할석이나 강돌을 1-2개 놓아 받침역할을 하고 있다. 노지 주변에는 주로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 시루 등이 공반된다. 한편, 3-4세기대의 주거지에서는 배수구가 다수 확인된다. 벽구를 돌아 주거지 밖으로 빠지는 배수구는 주거지 중심부에 出口를 두는 경우와 한쪽 가장자리에 출구를 두는 경우로 양분된다. 대개는 주거지의 한쪽 가장자리에 배수구의 출구가 위치한다. 대형 주거지의 경우에는 2개의 배수구가 있어 배수처리에 많은 배려를 했음을 알 수 있고, 드물게 터널식 배수구가 있어 주목된다.

많은 주거지가 확인되었지만, 주거지간의 우열관계나 위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드물다. 이를테면 주거지 형태상으로 3-4세기대의 주거지가 대개 타원형계인데 반해, 일부 주거지는 특이하게 장방형계로서 그 면적이 다른 주거지의 2배 정도로 커지만 유물상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규모만을 본다면 위계성을 추론할 만하지만 유물상에서 두드러진 면이 보이지 않기에 마을의 공동집회장소로도 상정해 본다.

3-4세기대 주거지의 다수는 주거지 바닥에 불다짐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범위는 주로 주거지 중심부에 한하는데, 취침공간을 습기로부터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거지 주변에서 4기의 고상가옥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2칸×2

칸의 규모로서 정형화되어 있다. 중심연대는 3-4세기대로 추정된다. 고상 가옥의 기능은 창고, 망루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동시기의 주거지의 공간배치와 관련지어 주목된다.

한편 4-5세기대의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 타원형, 반원형, 방형계의 주거지로 구분되는데, 타원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형, 타원형, 반원형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데, 대개 벽구와 배수구 시설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가 공반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로 추정되는 4柱式의 방형계 주거지는 수혈의 깊이가 얕아 지상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거지에서는 비교적 깊은 벽구(壁溝)가 확인되며, 출토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보다는 회청색경질토기의 비율이 높다.



사진2-11 : 심발형토기



사진2-12 : 석관묘(광양읍 용강리 관동마을)

집필 : 순천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동희